

품성이 중요하다

‘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
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’

(잠언 10:9)



교장 김 환

[정의란 무엇인가]의 저자 마이클 샌델(하버드대 교수)은 “교육을 많이 받으면 더 정의를 살 수 있는가, 아니면 교육보다는 인간의 품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가”라는 질문에 그는 주저 없이 ‘품성’이라고 확답합니다.

과학과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정의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, 철학과 예술, 역사, 인문학 등을 통해 품성이 좋았을 때 정의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.

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집니다.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.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과 자신을 끝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.

언제 어디서나 웃음 짓는 미소와 성품은 남을 이롭게 하고 나 또한 이롭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